

제 8 호

연중 제 3 주일

(공현후 제 3 주일)

1973. 1. 21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론】

본당의 주인은 누구냐?

오 기 순 신부



본당은 신부와 신자들로 구성
 된 볼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입니
 다. 신부는 오늘이라도 존귀될
 수 있는 사람이고 따라서 영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뜨내기
 신세이지요. 이런 사람이 영구적

이고 영속적인 계획을 세우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교회
 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임시적입니다. 이런 사
 람이 영구적인 교회의 주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임시적
 인 신부가 그 본당의 주인 노릇을 할 때, 그 본당은 자
 리가 잡히지 않고 경제적으로 막심한 곤란을 느끼고 신
 부와 신자간에 재정적 오해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신자들은 신부가 아무리 잘려가도 그 본당에 항구히
 영주합니다. 그래서 그 교장에 영주하는 신자들이 그 본
 당의 주인이 될 수 밖에 안 도리가 없습니다. 본당 교우들
 이 자기 본당의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주인 노릇을 할 때
 그 본당은 자리가 잡히고 경제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잡
 을 것입니다. 교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당 교우들은 각자, 또 모든 신자들이 틀림없이 그 본
 당의 주인 이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주인은 본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지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는 정
 당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우들은
 그 권리도, 의무도,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 한심한 실정
 입니다. 신부가 무엇이라고 하면 듣는 시늉을 하고, 신
 자들의 대표인 사도회에서 말하면 순제 의면하고 못들은
 채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가 본당의 주인이 될을 모독
 하는 태도입니다. 이리고서야 어찌 그들이 본당의 주인
 된 자각을 하고 책임을 이행하는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
 요?

그래서 나의 주장은, 신부는 미사, 성사, 강론에만 책
 임을 지고, 기타 모든 것은 본당의 주인인 교우들이 전
 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당의 재정, 운
 영, 관리 등을 책임지고 각자 자기 책임을 완수할 때,
 그 본당은 발전할 것입니다. 신자들이 본당의 주인이라
 면 주인 노릇을 뚜렷히 해야지요.

신자들이 교무금을 안내서 사도회는 본당 운영에 막심
 한 고통을 당합니다. 사도회 임원들을 보고 도둑질을
 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말인가요? 그러지 말고
 각 본당 교우들은 자기 본당의 주인이란 자각을 하고 주
 인된 의무와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세요!

(북자 성당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 **임당송**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드리라, 온 누리여
 야훼께 노래 불러라. 당신의 앞에는 위엄과 영광, 당
 신의 성소에는 힘과 빛이 있도다.

□ **제1독서** (이사이사야 3장)

니니베 사람들이 그 악행을 버리고 회개하였다.

□ **총계송** 주여 당신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지름길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은 나를 구하시는 하느님
 이시니, 당신의 진리 안을 견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내
 러 주소서. 주여 당신의 길을 내게 보여 주소서.

□ **제2독서** (고린토 전서 7: 29-31, 성서 p.382)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 간다.

□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
 음을 믿으라. 알렐루야.

□ **복음** (마르코 1: 14-20, 성서 p.76)

회심하고 복음을 믿으라.

□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이웃이 주안에서
 한 형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
 어 주소서.

2. 주여, 망신의 위대한 사명이 저희들에게도 합당하
 오니 충성껏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

3. 영생의 근원이신 주여, 저희를 모든 불의에서 구하
 시고 온전히 당신께 의지하고, 당신의 사랑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

4.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당신의 목적하시는 바에 이
 용해 주시고 저희들의 서투른 일들을 바로잡아 주소서. ◎

5. 전능하신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우리의 심
 령의 넓이를 넓혀 주시어 당신이 들어 오실 수 있게 하
 옵소서. ◎

□ **영성체송**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 오는 사
 람은 어둠을 속을 걸지 않고 빛을 얻으리라.

※ 이 주간의 성경 ※

22(월)독서 (히브리 9: 15, 24-28, 성서 p. 508)

복음 (마르코 3: 22-30, 성서 p. 81)

23(화)독서 (히브리 10: 1-10, 성서 p. 509)

복음 (마르코 3: 31-35, 성서 p. 81)

24(수)독서 (히브리 10: 11-18, 성서 p. 510)

복음 (마르코 4: 1-20, 성서 p. 82)

25(목)독서 (사도행전 22: 3-16, 성서 p. 320)

복음 (마르코 16: 15-18, 성서 p. 120)

26(금)독서 (히브리 10: 32-39, 성서 p. 512)

복음 (마르코 4: 26-34, 성서 p. 83)

27(토)독서 (히브리 11: 1-2, 8-19 성서 p. 512)

복음 (마르코 4: 35-41, 성서 p. 84)

□ 교리교실 □



효도하신 예수님

박진량 신부

오늘날처럼 세대 차이를 많이 이야기 하는 시대도 드물성 싶다. 요즈음은 나이 차이가 바로 세대 차이라고 까지 할 지경이다. 그런데 효도는 분명히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수님은 이 효도를 어떻게 보셨을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마태오 10: 37)라고 말씀 하신다. 예수님은 분명히 효도를 인생의 지상 목표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느님을 다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다 실천하고 남은 정력과 시간만을 부모님 섬기는 데에 바치면 족하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대한 효도를 지상 부모님께 대한 효도보다 훨씬 더 강조하셨을 뿐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말로 지상의 부모님 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 관계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 마저 끊어 버리지 않으면 안되기(루카 14: 26 참조) 때문이다. 한 마더로 지상의 그 무엇에게 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 지극한 효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지상의 부모님에게도 지극한 효도를 하셨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루카2: 95) 예수님이 당신 생애의 거의 전부를 지상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데에 바쳤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다. 부모님을 고독하게 홀로 남겨 놓으시지 않고 당신 생애의 9할 이상의 시간을 고스란히 부모님에게 순명하며 지내셨다는 것은 수천 마더의 효도 강조론 보다도 더욱 힘있는 가르침이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인간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았다」(루카 2: 52 참조)는 말씀으로 보아, 당신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집안의 여러 어른들과 동네 어른들에게 까지도 알뜰한 효도를 했음이 분명하다. 「하느님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렸고(요한 4: 24참조) 지상의 부모님은 지상적인 존재이니까 인간의 정의(情義)에 맞게 참되게 부모를 공경했음에 틀림없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만 보태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도로 바쳐서 몸으로 효도했다.

□ 양지쪽 □

백합향기



바쁘게 어느 골목길을 지나는 길이었다. 길바닥에 저 앉은 슬취한 젊은이를 붙잡고 어느 부인이 애를 우고 있었다. 젊은 내외간의 일이려니 하고 그냥 지나 버렸다. 그때 그 부인의 말이 우리 일행의 화제에 올랐다. “누우려던 마르테로나 누우세요” 이 말을 들은 것은 친구 하나가 불쑥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뒤셔” 하고 내뱉는 틈에 피식 웃고 말았다. 돌아 나오는 보니까 그 젊은이는 그 옆 상점 담벽에 기대어 잠이 있고, 애를 타던 그 부인은 상점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다. 그 꼴을 보고 나 혼자만의 생각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던가 하고 혼자 웃었다.

이때 잠깐 어지러운 생각들이 머리 속을 혼란시켰다. 「그 부인이 한 일은 정말로 고마운 일인가, 아니면 장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 젊은이를 단순한 장애물로 각하고 한 쪽으로 옮겨 놓은 걸까?」 그러나 그것은 무래도 좋았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반병 남은 술을 보고 아직도 반병이나 남아 있었구나」 하고 기뻐할 수도 있 「아이구 이제 반병 밖에 안남았구나」 하고 섭섭히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항상 앞엿 것으로 생각기로 했다.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가 어렵다지만, 아름다운 일들 우리들의 생활을 밝게 비추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들은 제자를 치료해 주고 학비까지 보태어 준 사람, 을 포기한 사람에게 직장을 구해주고 용기를 불어 넣 준 사람, 소아마비 친구를 도와 책 가방을 들어다 준 홀리개 까지 슬하계 많다. 마치 코스모스의 향기처럼 은하계 말이다.

여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병 환자 안에 백합의 향기로 그들과 우리들을 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릴리(百合)회」 이 모임이 바로 그들이다.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도울 수 없을 망정 매월 일정액 회비(300원)로 그들을 돕고 있다. 씨앗 중에 가장 작겨자씨가 큰 나무를 내듯이, 한 소녀의 웨침이 전국적으로 커다란 메아리를 울리게 했다. 마침 다음 주일(14: 28일)이 나병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구라 주일이다. 신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백합향을 싫어하십니까? (갑)

		중	양	노	송	등	덕	진	복	자	서	학	등	전	동
교 리 사 간	예	일	반	일(11시)	화. 목(10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비	직	장	화·목(오후 8시)		화(오후 7시)			수(저녁미사후)					일(오후8시)	
	자	학	생	수·토(오후 7시)											
	아	동		토(오후 3시반)		토(오후 3시)		일(오후 2시반)	일(11시)		일(9시)			일(9시반)	
	학	생		일(9시)		토(오후 4시)		토(오후 4시)						일(11시)	

* 대화의 광장 *

● 잔디밭 ●



감사 합니다

김 영 란

하늘의 무도회가 지상에 은하수를 만들고 있는 겨울 어느 오후였습니다. 나는 외투 주머니에 두손을 깊숙히 넣은 채 걸음을 빨리하여 A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조그마한 내 작품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작품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대학에 들어서자 나의 가슴은 쫓기는 참새인양 요동을 쳐했습니다. 팔딱거리는 가슴하며 달아오른 귀뿌리가 더욱 그러했습니다. 초조한 마음과 짓눌리는 기분 때문에 여러 다른 작품들을 진성으로 보아 넘겼습니다. 진정으로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눈에 익은 내 그것을 찾아 뵈었습니다.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특선」이라고 써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였고, 항상 지니고 다니던 목주를 움켜쥔채 그 십자가를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의식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나를 캐찍질 해가며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의 뜨거운 사랑! 푸른 꿈에 부른 소녀의 가슴을 정겹게 부르시며, 다정한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던 결과가 이렇게 곱고도 탐스러운 꽃을 피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나날을 살아가며 부모님의 사랑, 어른들의 따뜻한 지도, 하느님의 은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대개는 진성으로 넘기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미사가 끝날 때마다 입술로만 “천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줄 압시다.

(울리아, 중앙 토사리오 쉐회원, 전여고 1학년)



의료 협동조합이란?

배 영 근 신부

의료 협동 조합은 빈부 귀천의 차별없이 우리들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 할 때 병자에게 도움을 주고, 병이 났을때 도움을 받는 상부 상호의 협동 운동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적은 가난과 질병입니다. 질병은 노동 생산성의 계속적인 저하와 기술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의 저해로 인해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단란한 이웃의 웃음을 빼앗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질병은 빈곤의 길이며 국민 경제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가난과 질병, 신체의 장애 등등으로 잘못된 삶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보장없이 내버려져 있는 「내일의 희망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료 협동 조합은 내 자신의 참된 삶의 환희를 발견하고, 또 내가 이웃을 돕는 사랑의 고요한 혁명이며, 내 가정을 보호하는 가정 경제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비 영리 단체로서 조합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합원의 조합」인 동시에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의 복지 사회 건설의 요람으로서 상병(傷病)으로 인한 고통을 낮게 하고 정신의 피로움 까지를 덜어 주는 사회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가난과 질병 때문에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조합원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최대의 봉사로서 선처해 주는 조합원의 참된 친구입니다.

(의료 협동 조합 발기인)

주보 보내기 협조자 이강영(태평동), 김정애(저금관리국), 이성노(저금관리국), 이영희(전동 선교부장), 감사합니다

독자 원고 모집 (해성학교 ㉸3998 한상갑-200자 3매 내외 또는 7매, 사진동봉 바람)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3498)

22<월> 지성인 교리 교실<제2기- 박신부 지도>

25<목> 외국 문화 교실 <독어>

23<화> 외국 문화 교실<영어>

26<금> 지성인 교리 교실<제1기-문신부 지도>

※근하 신년※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교사동 1가 오거리통 동아여관앞 전화 ㉸6094

※근하 신년※

동남 샵프 TV 및 스토-브 전주대리점

전주극장 입구 ㉸5504

여 요 썩(운창)

전주 시내 6개 분당 소식

(중앙) (전화 ㉠2651)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준

1. 영세자 첫 고백(다음 주간)
 성탄 때 영세 받으시고 아직 첫 고백 않으신 분은
 잘 준비 하셔서 고백 성사를 받으십시오.

2. 신용조합 월례회(1월 28일 공식 미사 후)

3. 성모회 월례회(1월 21일 공식 미사후)

4. 5월의 마돈나 꾸리아 피정(다음주 금요일)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은 물론이고 협조 단원 및 모
 든 신자들도 되도록 참석을 요망. 강사신부 조성옥
 시간 : 73. 1. 26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지난 주일 봉헌금 (31,541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꼬미시움 월례회(1월 21일 1시반, 전동)
 2. 사제양성 후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다.
 지난 주간 성미 (3달 6회) 누계 78말 8회
 지난 주일 봉헌금 (12,20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1. 부녀회 월례회(1월 21일 공식 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1월 28일)
 3. 사제 양성 후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다.
 지난 주일 봉헌금 (11,432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1. 교무금 미신입 현황
 1반(2세대) 2반(2세대) 3반(3세대) 4반(5세대)
 6반(3세대) 7반(6세대) 9반(1세대) 10반(2세대)
 11반(3세대) 12반(4세대) 13반(2세대) 15반(2세대)
 16반(2세대) 17반(2세대) 18반(4세대) 제 43세대
 2. 교구비 납부 현황(1월 10일 50,000원 납부)
 70,71년도 미수 잔액 250,000원
 72,73년도 교구비 완결
 3. 성가대 기금 및 회원수(1월 18일 현재)
 회원 : 25명, 기금 13,065원
 지난 주일 봉헌금 (8,146원)
 지난 주간 교무금 (16,00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애령회 모금 운동 협조 바람.
 돌아 가신 분들을 위한 애령회 사업을 위해서 매
 일 한줌씩 성미를 모아 바치는 일이 어떨지요?

2. 신용 조합 월례회(1월 21일 공식미사 후)

3. 구정 합동 위령 미사(2월 3일)
 돌아가신 부모 친지를 위한 위령미사 예물 접수중.

4. 성가와 전전 가요를 통한 즐거운 시간
 ①시간 : 매주 토요일 저녁 미사 후
 ②자격 : 중학생 이상의 남녀
 ③주최 : 푸른 양지회 ④후원 : 선교부

5. 학생회 피정에 많이 참여하십시오.
 지난 주일 봉헌금 (5,44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꼬미시움 월례회(1월 21일 1시반, 유치원)
 2. 전기 고교 수험생을 위한 미사(1월 23일 6시)
 3. 교무금 미신입 세대 (350여 세대)
 금주내에 신입하여 분당 살림을 도움시다.
 4. 성심 유치원 1973학년도 원아 모집
 유치원에 문의 바람 (전화 ㉠8347)
 지난 주일 성미 (1말 5회, 현금 550,) 구유금(725원)
 애령회 특별 봉헌금 (6,725원)
 지난 주일 봉헌금 (27,985원) 감사합니다.

사제양성 후원 기금 협조자

전동 누계 350,000원
 송영선 장준수 송재진 유경옥 황희상 방준철 한상갑
 (각 5만원)

태평 1가 2구 강복배(2만원) 이강영 온두현(각 1만원)
 김정배(5천원) 이정철(3천원)

태평 2가 천건(2만원) 이정희 윤석언(각 1만원) 원종
 삼 임경애 이갑진. (각 5천)

중앙 누계 923,000 원
 서노 2구 이두만(5만원) 김귀임 정필수 백이순 김후경
 함문권 김순덕 이오성 김복순 오균자 양근삼 (각 1만원)
 김분순 최희순 서정기 김중복 최갑철 양수진 (각 5천원)

중노 이용호(3만원) 박태복(1만원) 김순애 이금심 강
 수남 유재근 조상열 우정순 박소녀 백복주 전완봉 한귀
 자(각 5천원)

결 **[축]** 혼

임 형 순 군과 박 순 규 양(1월 21일 11시 노송동)
 이 창 식 군과 박 인 순 양(1월 22일 10시 서학동)
 이 누 수 군과 김 진 송 양(1월 24일 11시 중앙)

- 소식** 숲정이 편집 위원 회의(1월 22일(월) 오후 6시 가톨릭 센터)
- 신용 조합 임원 조합 창립 총회(1월 22일(월) 오후 7시 가톨릭 센터)
- J.O.C 일반회(1 27일(토) 7시반 가톨릭 센터 전동 쉼 온 주관)

장학생 선발 오지리 부인회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분당
 신부님이나 교육 부장께 문의 바람
 구라 주일 다음주에 나병 환자를 위한 특별 헌금 있어
 오니 적극 협조 합니다.
 선종 안 세시리아(12반)씨 선종에 진심으로 슬픔을 표
 합니다. (1월 16일)